

태양광 비리 사법처리 언급한 윤 대통령... 文정부 정조준?

“개탄스럽다” 강도 높은 비판

사법당국 움직임 따라 파장 예상

정치현안 즉답 회피 모습과 대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직격했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법당국의 움직임 등에 따라 후폭풍도 적잖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지난 13일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는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었다.

“참 개탄스럽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에, 위법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현장 행보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현안에는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전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기초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대선후보 시절 피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천억 원대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처리’ 언급을 두고 사법당국을 향해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강조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경우에 따라 비쳐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 특혜와 관련해 구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계속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정치 공세의 빌미는 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 조사와 관련해 “이미 작년인가부터 시작됐다”며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해 죄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거리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키워드는 ‘책임’...글로벌 리더 역할 강조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계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빠빠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을 두고는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했다”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경제정용 등 현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총리 뉴욕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시점에서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인 20일(이하 현지시간) 낮 10번째 순서로 연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연설 초안이 완성됐으며, 막바지 수정 작업 중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과 희생으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으며, 그 토대 위에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점을 상기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른바 ‘글로벌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연합뉴스

국힘 신임 원내대표 경선으로 뽑는다

합의 추대론 사실상 무산

이용호 의원 출마 기자회견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 버리고 계파를 파괴하고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원내대표 둘러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을 만나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게 살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선 국면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거쳐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를 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의를 밝힌 이후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날 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추대론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날 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 외에 현재 김학용·홍문표(4선), 김태호·박대출·윤영석·윤재욱·이종배·조해진(3선) 의원 등이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계획과 관련해 “가부간에 오늘(입장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애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4선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가처분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 방식이라도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양새가 좋게 끝나면 좋다. 당의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라며 추대론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당규에 따라 오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정진석 “한일 윈윈하자...김대중-오부치 선언 시절로 복귀해야”

평화·번영 위한 제주포럼 개최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한일 양국이 올바른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윈윈’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 한일의원특별세션 개최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 불안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 김정정은 며칠 전 핵보유국을 법제화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면서 핵 선제공격을 공언했다”며 “한일 양국 안보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이 절실하다”며 “어느 한쪽에 해법을 마련하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일 양국 의회 및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24년 전 김대중(DJ)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한일관계를 그 시절로 시

급하게 복귀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998년 10월 당시 김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한일 양국 두 정상의 공동선언에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과 함께 오부치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힘을 모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 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슬로건 일반부 [우수작]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광주교육

한 순간도 놓지 않는 청렴실현